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첫째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둘째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둘째주를 통해 여름철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준비해보세요. 8월 둘째 주차는 여름성경학교와 휴가철이 겹치는 시기로, 특별히 가족의 안전과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둘째주 1 - 가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도

“여호와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5)

휴가철과 여름성경학교가 한창인 8월 둘째주, 우리 가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서도, 물가에서도, 산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휴가를 떠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주시고, 특히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나 야외활동을 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이나 탈수증상이 없도록 건강을 돌봐주시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교사들, 봉사자들을 특별히 보호해주시옵소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도 건강하게 보호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여름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휴가를 통해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새롭게 깨닫고,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둘째주 2 - 여름 성경학교와 교육 사역을 위한 기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여름성경학교가 한창 진행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간구합니다. 아이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러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 평생토록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모인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해주소서. 처음 교회에 발걸음 한 아이들도 있고, 이미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여주소서.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성경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쉽게 다가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주소서. 여름성경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잘 발휘하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주님의 기쁨과 힘으로 새롭게 하여주소서. 또한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주소서. 부모님들과 교사들, 교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협력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주소서. 여름성경학교가 끝난 후에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복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둘째주 3 -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위한 기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1-2)

무더운 여름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주소서. 기온이 높아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뜨겁게, 여름 태양보다도 더 강렬하게 타오르게 하여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폭염이 계속되는 이 여름에도 새벽예배를 위해 나오는 성도들을 축복해주소서. 이른 새벽 시간이지만 여전히 더위가 느껴지는 날들, 그래도 주님과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들의 신앙을 귀하게 여겨주소서. 몸은 비록 무겁고 지칠지라도 영혼은 더욱 상쾌하고 생기있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주소서. 더위로 인해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기 쉬운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지켜주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더위라는 시련을 통해서도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주소서.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세심하게 돌아보는 사랑의 손길이 넘쳐나게 하여주소서. 무엇보다 이 무더운 여름이 우리 신앙에는 오히려 단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주소서. 편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날씨가 궂을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주소서. 여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견고해져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둘째주 4 - 여름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여름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만남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휴가지에서도, 고향에서도, 일상의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떠나는 선교팀들을 축복해주시옵소서. 국내 농촌지역이나 오지, 그리고 해외 선교지로 향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단기선교팀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현지인들의 마음에 전해지게 하시고,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도 큰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주옵소서. 국내에 머무르는 성도들에게도 선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름휴가를 통해 만나게 되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주옵소서. 억지로 전도하려 하지 않아도, 우리의 밝은 모습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주옵소서. 특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교회에 처음 온 아이들의 가정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주옵소서. 아이들을 통해 부모님들도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휴가철 해외여행을 가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게 하시고,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사랑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주옵소서.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더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주옵소서. 모든 선교와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